

계엄군 퇴각, 시민자치 운영...질서·치안 완벽 유지

33년전 그날엔... '5·18대책위' 결성 협상나서
되돌아 보는 5·18 도청엔 시신 잇따라 실려와
(4)22일 광주공동체 실현 민주화 열망 전남지역 확산

계엄군이 뒷문을 통해 옛 전남도청에서 퇴각하면서, 80년 5월22일 광주는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시민공동체로 탈바꿈하게 된다.

광주 시민들은 시민군의 도청 장악 소식에 오전 9시부터 도청 광장과 금남로 일대에 집결했다. 시민들은 혼란속에서도 길거리에 흩어져 있던 잔해들을 치우고 시내를 청소하는 등 높은 시민의식을 보였다.

전날 밤 전투에 참가했던 시민군들은 광주공원에 모여 재편성돼 계엄군의 반격에 대비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치안을 유지했다.

도청을 본부로 한 시민군은 1층 사무과를 작전 상황실로 사용하면서 차

량 통행증, 시내 주유소의 유류보급증, 상황실 출입증 등을 발부했다. 오전 11시20분께는 적십자 병원 현철차와 함께 '시민이여 일어나자'는 문구가 내걸린 지프차가 돌아다니며 부상자들을 위해 헌혈을 촉구했다.

이 때부터 광주 시민은 자체적으로 치안을 유지해 오히려 범죄율이 평상시보다 떨어졌다. 하지만 당시 진압군은 '정훈활동일지(사태기간중)'에 '광주시 완전 무법지대(악랄, 살인)'라고 왜곡 표현해 놓았다.

이날 낮 12시30분께는 신부, 목사, 변호사, 정치인, 교수 등으로 구성된 '5·18 수습대책위원회'가 결성됐다. 위원회 대표 8명은 ▲군의 과잉 진압



1980년 5월22일 도청 앞에 모여있는 시민들.

인정 ▲연행자 석방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 보상 ▲발포명령 책임자 처벌과 국가 책임자 사과 ▲사망자 장례식 시민장 추진 ▲사후 보복 금지 ▲이상의 요구가 관철될 시 무장 해제 등 7개항이 담긴 수습안을 오후 1시30분 상무대 계엄본소에 전달하

는 등 계엄사 측과 협상을 벌이기 시작했다. 또 계엄군의 무자비한 만행과 발포로 목숨을 잃은 주검들도 속속 도청 광장에 안치됐다. 도청 옥상에는 태극기가 검은 리본과 함께 반기로 게양됐다.도청 앞 광장에는 이날 오후 4

시 시체 18구가, 오후 5시40분에는 시체 23구가 차례로 실려왔다.

오후 5시20분, 일반수습위 대표들이 상문대 방면 결과를 발표했다. 계엄사는 수습위가 내건 요구조건을 수락하지 않고 먼저 시민군 무장해제를 요구했다. 수습위 내부에서는 강건과(투쟁과)와 온건과(사실상 투쟁과)가 대립하기도 했다. 훗날 이런 혼란은 상당 부분 정보당국의 교란작전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부터 민주화를 향한 시민들의 움직임은 광주를 넘어 인접 시 군으로 뻗어나갔다. 계엄군은 민주화 운동이 전남 이외의 지역으로 확산할 것을 우려해 '상무총정작전' 3단계 작전을 통해 호남고속도로와 철도 등 도로를 차단하고 광주를 봉쇄했다.

하지만 광주의 항쟁 소식을 접한 목포, 나주, 화순, 해남 등 전남의 주요 도시 주민들이 시위에 동참하면서 민주화의 갈망은 전남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박정열기자 halo@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24분 해질 19시 35분 달돋이 16시 21분 달지 02시 58분

더위 기승
일교차 크니 건강 유의하세요

광주	맑음	14/30°C
목포	맑음	13/26°C
여수	맑음	16/24°C
나주	맑음	11/31°C
완도	맑음	13/28°C
구례	맑음	11/30°C
강진	맑음	11/29°C
해남	맑음	11/28°C
장흥	맑음	10/29°C
순천	맑음	10/28°C
영광	맑음	12/28°C
진도	맑음	12/26°C
전주	맑음	14/30°C
군산	맑음	12/25°C
남원	맑음	10/30°C
홍산도	맑음	13/21°C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m 1.0~1.0m 1.0 1.0 1.0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m 1.0~1.0m 1.0 1.0 1.0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m 목포 11:26 04:53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m 여수 06:34 00:29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3(목)	24(금)	25(토)	26(일)	27(월)	28(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16/30	17/30	16/30	17/27	18/25	17/26



초여름 날씨 속 시원한 물줄기
때 이른 더위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내다 봤다.

광주가 28.8도를 기록하는 등 최고기온이 평년에 비해 3도 가량 높은 초여름 날씨를 보인 21일 광주시 동구 학동 광주천변의 인공폭포가 시원스레 물줄기를 쏟아내고 있다. 기상청은 27일 비가 내린 뒤 광주·전남의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검찰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내달부터 전국 시행

최근 3년 이내 폭력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2회 이상 받은 전과자가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된다.

대검찰청 강력부(김해수 검사장)는 국정과제인 4대악 척결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오는 6월부

터 전국에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죄질이 불량

하면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또 3년 이내 벌금형 이상의 폭력전과가 2회 이상인 사람이나 생애 4회 이상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연합뉴스

유해물질 누출 사고

원청업체 처벌 강화
최고 징역 5년·벌금 5000만원

불산이나 황산 등 유해물질 누출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원청업체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대 화재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원청업체에 가했던 처벌 수위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불산(불화수소), 황산, 포스핀, 시안화수소 등 고유해·위험 물질을 다루는 작업을 하청업체에 맡길 경우 안전작업계획서를 고용부에 제출해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위험물질을 다루는 하도급 인가는 3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며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 유해·위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연합뉴스

'살인 진드기' 감염자 첫 확인

강원도 거주 60대 텃밭 일구다 물려 사망

국내에서 '살인 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감염 의심사례 조사 결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를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10% 미만 정도로, 이미 널리 알려진 곤충매개 감염병에 비해 특별히 높은 수준이 아닌 만큼 '공포'까지 느낄 이유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야외에서 활동할 때 피부 노출을 최대한 줄이는 등 각별한 주의만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감염이 확인된 환자는 과거에 유사 증상을 보였으나 질병 원인을 확인하지 못한 환자를 대상으로 발인 역추적조사에서 SFTS 감염이 의심된 5명 중 사망한 환자라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첫 확진 환자는 강원도에 거주하다 지난해 8월 사망한 63세 여성이다. 이 환자는 지난해 8월3일 벌레에 물린 부위가 부

어오르면서 발열과 설사 증세를 보여 지역 병원에 입원했으나 증세가 지속 악화돼 입원 5일만에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고 같은달 12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환자 신체 검진에서 목 뒤에서 벌레에 물린 자국이 발견됐고, 얼굴 발진, 결막 충혈, 인과선의 심한 염증 등이 나타났다. 환자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 보름동안 텃밭에서 3~4차례 작업을 했고 이 때 벌레에 물렸다고 기억했다.

당시 서울대병원의 조사에서 원인으로 의심되는 쓰쓰가무시증, 신중후군출혈열, 말라리아감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또 최근 제주에서 사망한 의사환자에게서도 SFTS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고 증상을 SFTS와 일치했다. 이는 현 단계에서 감염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미다.

보건당국은 야외 활동을 할 때에는 긴팔과 긴바지를 입는 등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황사, 꽃가루, 미세먼지로 간지러운 코

씻 코

코속에 뿌리는 비강세척제 - 엔클 비액

- 배편효과! 만성비염,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균을 과용으로 인한 염막 건조 신속히 개선
- 무자극! 인체와 깊은 농도의 생리식염수농도로 자극적이지 않고 축적된 점막 유지
- 휴대편리! 스프레이 타입의 제품으로 비강 내 살균이 편리하며 이동 시 휴대 간편
- 안심사용! 온가족이 상비해 놓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착한 향기의 알코올프리

※어린이, 학생, 직장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코 건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효과 / 비염, 알레르기, 만성비염, 축적된 점막 건조 신속히 완화
용량·용법 / 성인: 용량에 따라 필요 시 1회 1~2회 사용한다. 2~3회 반복 사용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용량변경한다

알레르기 비염, 콧속염증으로 답답한 코

뽕 코

코속에 뿌리는 비충혈제거제 - 트인 비액

- 배편효과! 코막힘으로 인한 잠과 생활의 불편을 완화 신속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
- 중성성! 꽃가루 알레르기 비염, 부비강염으로 인해 코가 막히는 답답한 증상을 해소
- 휴대편리! 스프레이 타입의 제품으로 비강 내 살균이 편리하며 이동 시 휴대 간편
- 안심사용! 전신작용이 적은 코 안 환부에만 작용하는 착한 향기의 알코올프리

※어린이, 학생, 직장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코 건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능·효과 / 감기, 고초음, 부비강염, 상기도 알레르기 등에 의한 비충혈을 완화하여
용량·용법 / 성인 및 12세 이상 어린이: 용량에 따라 1일 4~6회, 양쪽 비강에 2~3회 반복 사용한다

제품문의 02)3489-6186 광고심의필: 1202-0705 인터넷 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의 상담하십시오.

한림제약주식회사
http://www.hanlim.com